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경허 선사 (4)

몰되, 아직도 쌀 자루가 무거운냐?  
답하되,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경허 선사와 만공 스님이 탁발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만공 등의 쌀자루에는 쌀이 가득했다. 길은 먼데 몹시 무겁고 피곤했다. 선사가 만공을 돌아보며 말했다. "무거운냐?" "예." "그러면 내가 무겁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줄테이니 너도 따라 하거라." 그러자 만공은 귀가 솔깃하여 "예, 스님" 하며 대답했다. 선사는 마침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젊은 아낙네의 양귀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에그머니나!"

이유만으로 경허 스님의 무애행을 비판하는 것 역시 마치 '대통 같은 소견으로 비방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큰 코끼리는 토끼 길에 노닐지 않고, 큰 깨달음은 작은 절개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위의 선회는 무겁고, 가볍다고 하는 우리의 느낌이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일깨우고 있다. 마음속에 '한 물건(一物)도 없었다면 무겁다거나 두렵다는 생각이 발붙일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때문에 이 선회답은 2조혜가 스님이 달마 대사를 찾아가 "마음이 불안하니 안심(安心)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법을 청했을 때, 달마 대사가 안심법문을 베푸는 장면과 흡사하다. 달마 대사가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 오너라. 너에게 안심을 주리라"고 했을 때,

**무아자재한 행위 통해 심법의 이치 깨닫게 하는 경허 선사의 '심지법문'**

어린은 비명을 지르고 물동이를 떨어뜨리고는 마물로 달려갔다. 이 소문이 곧 마을에 퍼지고 급기야는 풍동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뛰어나왔다. "저 땀중 늙음을 잡아라!" 선사는 이미 저 멀리 도망가고 있고 어안이 병병하던 만공은 놀라서 "겉을 날 살려라" 하고 뛰기 시작했다. 이윽고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경허 선사가 말했다. "아직도 무거운냐?" "그런 길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 재주가 어떠냐? 무거운도 있고 그런 길을 단숨에 달려왔으니 말이다."

유명한 이 선회(禪話) 역시 무아자재한 행위를 통해 제자에게 심법(心法)의 이치를 깨닫도록 하는 경허 선사 특유의 심지법문(心地法門)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혹시나 깨치지 못하고서 먼저 막행막식(莫行莫食) 하는 무애행부터 흉내내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불법을 비방하는 자일뿐이다. 또한 단순한 파계(破戒)했다

김성우 객원기자

# '일어남과 사라짐' 알아차려 갈애끊기

## 몸 느낌 마음 법 네가지 대상의 '무상' 깨달아 열반 증득 한국위빠사나선원 '12연기 강좌' 인기... 3월에도 개강

"수행자는 어떠한 느낌(受)이 일어나든 그 일어남(生)과 사라짐(滅)을 알아차려서 느낌에서 갈애(渴愛)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느낌을 무상(無常)으로 알아차릴 때 갈애가 일어나지 않으며, 갈애의 소멸이 곧 도(道)입니다" 2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청호 불교문화원 1층에 자리 잡은 한국위빠사나선원에서는 선원장 모인 법사의 '수행자를 위한 12연기(緣起) 강좌'가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회향되었다. 모인 법사는 '법부와 아라한에게 미치는 느낌이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마지막 강의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의 알아차림(念, sati)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위빠사나선원의 '수행자들을 위한 12연기 강좌' 중강시간 수강생들의 실습 모습. 오른쪽 사진은 열강하는 모인 법사.

그는 미얀마의 전통적인 고승 모국 사야도의 말을 인용하며 "붓다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곳은 고결한 황금좌(黃金座)가 아니라, 갈애가 느낌으로부터 잘려나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최승의불(最勝義佛)이 되는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말했다. "12연기(緣起)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 (無常)을 알아차려 갈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기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해온 셈이다.

김(受, 감각)·마음(心, 마음의 움직임)·법(法, 생각의 대상)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12연기라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확고히 해가는 선교일치(禪教一致)의 수행과정이었다. 모인 법사는 "역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은 모두 사념처와 12연기였다"며 "많은 분들이 12연기를 통한 위빠사나수행을 통해 사견(邪見)을 제거하고 빠르게 공부의 진척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12연기는 흔히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의 핵심으로 일컬어진다. 그럼에도 그 중요성에 비해 그저 교리적인 이해가 있을 뿐이 것이 구체적으로 수행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가운데 모인 법사가 실감과 면담을 곁들여 지도한 이번 12연기 강좌는 사념처(四念處, 즉 몸(身, 몸의 움직임)·느

를 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의 국내 위빠사나 수행 단체들이 몸과 호흡관찰을 위주로 한 순수 위빠사나를 수행하는 반면, 한국위빠사나선원에서는 마음을 보는(알아차리는) 심념처(心念處) 수행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달마어록에 "마음을 보는 한가지로 모든 행동을 다스린다"는 '관심일법 총집제행(觀心一法 總攝諸行)'이란 유명한 말이 있다. 달마 대사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 달라고 말하던 혜가 스님이 결국 "그 마음을 찾으려 마옵소서"라고 심오한 것처럼, 마음을 보려야 볼 수 없지만 마음을 관(觀)하는 것은 눈·복방 모든 수행의 근본이다. 간화선이나 심념처 위빠사나가 모두 마음을 보는(알아차리는) 공통점이 있기에, 큰 괴리감 없이 이심전심이 된 것이다. 때문에 심념처 수행은 간화선-위빠사나 수행의 대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환주제는 본래는 언제라도 보시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환문의 상담형**  
서울시 종로구 명동길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t21.com

**수행개념**  
구미 인적사찰아침  
매일 넷째 주 토요일 철야참선을 한다. 매월 첫째 주 다니니 주간 둘째 주 <금강강> 주간 셋째 주 참회 주간으로 정한다. (054)431-1192  
통도사수련회총동문회 수련회  
'반야심경 사경'을 통한 불심 키우기  
7월 주제는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오전 7시까지, 암자순례, 법문, 사경, 정월대보름 달빛 포행 참선, 3보1배 등 진행. (010)9486-6501



수행을 충분히 한 뒤에 집중력이 생기면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쉽다.

모인 법사는 심념처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마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마음이 길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서로 다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항상 뒤에 일어난 마음은 새로 일어난 마음입니다. 순간순간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마음은 '조건'이지 '나'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아(無我)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무상과 괴로움(苦)과 무아를 보아야 사라지며 그중에서도 무아를 보면 더 확실하게 집착이 끊어지고 더 높은 의식수준을 얻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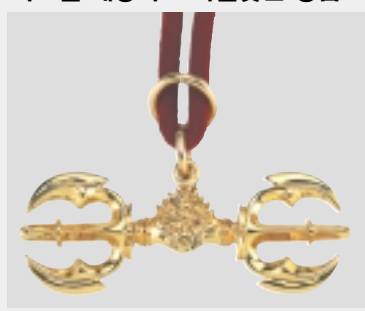
대상의 모양(相)을 보지 않고 '실재의 성품'(Paramattha)을 통찰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 사물의 본성을 바로 알아 볼 수 있다. 공(空)을 깨닫고, 공(空)의 실재를 관(觀)하는 것은 눈·복방 모든 수행의 근본이다. 간화선이나 심념처 위빠사나가 모두 마음을 보는(알아차리는) 공통점이 있기에, 큰 괴리감 없이 이심전심이 된 것이다. 때문에 심념처 수행은 간화선-위빠사나 수행의 대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렇다면 심념처란 어떤 수행법일까.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알아차린 마음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참(禪)하여 참(禪)하여 알아차리는 것이 심념처 수행이다. 물론 수행 시에는 몸, 느낌, 마음, 법 등 사념처의 대상 중에서 하나만 따로 존재하지 말고 모두 함께 작용한다. 마음은 미세한 것이기에, 먼저 몸을 알아차리

한편, 한국위빠사나선원은 3월 6일부터 6개월간 매주 화 오후 2-5시 '12연기 법문과 위빠사나 수행반'을 진행한다. (02)512-5258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e6@hanmail.net

##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 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다투어 화를 미러뿜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삼고금강저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벨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벨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남성)님들을 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된 벨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벨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벨트는 고급 천연소 가죽에 벨트메탈과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벨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벨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데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벨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신속에 문의하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발송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 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하는 어려움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투어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

## 옴마니반메흠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인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에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는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데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십삼보병관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대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 가죽에 金·銀·노·취리 까지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로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신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장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다투어 화를 미러뿜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생삼 남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인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